

國語辭典과 派生語

李 秉 根

1. 머 리 말

言語辭典의 標題項들이 이루는 構造를 흔히 辭典의 巨視構造(macrostructure)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구조상의 성분인 개개의 항목들은 독립적인 단락으로 주어진 微視構造(microstructure)에 대한 표제항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표제항을 이루는 개개의 항목은 흔히 그 언어의 전통적인 字母順序에 따라 배열되어서, 사전이용자들은 그 배열을 고려해서 개개의 항목을 찾아 그에 관한 여러 언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언어사전이란 그렇다고 해서 개개의 항목과 그 언어적 정보를 미시구조만을 고집시켜 기술해서는 안되고, 미시구조는 거시구조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전체 속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도록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표제항 전체는 표제항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선정·배열하여야 할 것이며, 표제항 하나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단 표제항들과 평행되게 여러 언어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제항의 선정과 그 정보 제공에 앞서서 언어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겠지만, 다만 언어사전이 흔히 순수히 언어학적 목적으로만 편찬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실용적인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도 편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해당언어의 전통을 고려해서 편찬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지금까지의 국어사전들이 바로 그러하였다. 예컨대 ‘상세’(詳細) 같은 항목이 모든 사전에 올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없다. 늘 ‘詳細하다’ 類로 쓰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유형의 단어들 사전의 표제항으로 올려진 것은 漢字語 사용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派生形態들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다라도 대부분의 사전에 표제항으로 올려지는 것도 역시 비슷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몇몇 國語辭典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히 派生語들을 중심으로 표제항의 설정과 그 대표항의 설정(lemmatisation), 그리고 그 배열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 사전적 定義의 방식까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거시구조를 이루는 표제항들 중에서

특히 派生語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 아래에서 사전 항목으로 선정·배열 되었고 또 미시구조를 이룸에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전 편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 되는 셈이기도 하다. 다만 排列과 定義의 문제는 필요한 곳에서만 부분적으로 관련시킨다.

2. 辭典項目으로서의 派生語

언어사전에 올려지는 표제항들은 그 언어에서 사용되는 語彙部 項目(lexicon item)이 되는데, 모든 語彙形態素와 모든 文法形態素가 포함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지 모르나 흔히는 최소한의 구조로써 만족되고 있다.¹ 언어사전의 표제항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cf. Allan 1986: 225).

- (i) 모든 屈折形態素
- (ii) 모든 派生形態素
- (iii) 모든 語彙的 語幹(語根 포함)
- (iv) 모든 語彙素(전체로서의)

이 네 부류 가운데서 지금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派生形態素와 그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語彙素일 수밖에 없다.

派生形態素가 전혀 標題項으로 올려지지 않은 일반 언어사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적으로는 派生語의 분석에 대한 태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가장 일반적인 태도로서는 派生語를 單純語彙素와 派生形態素로 분석하고서 派生語의 의미를 그 두 성분의 의미로부터 정의하고 사전에는 單純語彙素와 派生形態素를 표제항으로 올림은 물론이고 派生語도 올리는 태도가 있다. 물론 이 때에 派生語가 그 성분들에 의해서 완전히는 설명될 수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분석을 하지 않고서 派生語 그 자체를 化石化된 單純語彙素로 인식하여 독립된 항목으로 표제항을 삼게 된다. 예컨대 ‘짓밟다’ 같은 派生語의 경우에 ‘짓-’ ‘밟다’ 및 ‘짓밟다’ 모두가 표제항으로 올려져 ‘짓밟다’의 정의는 派生形態素 ‘짓-’과 單純語彙素 ‘밟(-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보기’로부터 줄여 쓰이는 ‘보기’는 통시적으로는 ‘보+기’의 派生語이지만 그 두 성분의 의미로부터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語彙素로서의 ‘보기’가 표제항으로 올려질 것인데, 이 때에 ‘보기’는 ‘보+기’와는 共時論的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¹ 예컨대, ‘N-하다’ 類의 用言들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대체로 N을 標題項으로 올리고 ‘-하다’와 같은 附隨項을 두면서 그에 대한 定義를 흔히 생략하고 있다.

標題項으로서의 ‘보다’와 ‘-기’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즉, 化石化로 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派生을 單語形成의 절차로 보는 경우에는 결국 새로운 語彙項目이 창조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깃뵤다’를 더 이상은 분석하지 않고서 ‘뵤다’ ‘깃뵤다’를 각각 독립된 사전항목으로 올리고 각각 그 자체의 정의를 내려 주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깃-’은 사전항목으로 오르지 않는데, 사전항목으로 오르는 ‘뵤다’와 ‘깃뵤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語彙素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에는 사전이용자들이 개개의 항목을 찾아보는 데에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두 語彙素 즉 單純語彙素와 그 派生語彙素 사이의 의미적 상관성을 파악함에는 불리할 것이다. 사전의 기능 가운데 어휘능력의 증대가 가장 강조되는 것이라면 單純語彙素와 그 派生語彙素 사이의 표기·발음·형태·의미상의 상관성까지 고려하여 사전편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역시 派生形態素 자체가 語彙素의 자격을 갖지는 않더라도 사전항목으로 오르게 된다. 사전이 語源의인 정보까지 담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派生形態素들이 사전항목으로 오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공시론적인 구조분석에 따라 사전편찬을 한다면 물론 많은 경우 派生形態素 자체는 사전항목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微視構造 안에서의 派生語의 語源表示는 별도로 마련될 것이다.

3. 接頭派生語들의 辭典的 處理

국어사전의 경우에 대부분 派生形態素들(그 명칭은 다양각색)이 표제항으로 올려져 있으나 그 선정·배열·정의 등에 있어서 체계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비교적 체계적으로 사전마다 제시하고 있는 派生語 가운데 하나가 色彩形容詞의 濃度에 관련되는 派生接頭辭 ‘새-(새-)~시-(시-)’에 의한 派生形容詞들이다. 예컨대,

까맣다/꺼멩다 : 새까맣다/시꺼멩다
 노랗다/누렁다 : 새노랗다/시누렁다
 빨갳다/뺨겡다 : 새빨갳다/시뺨겡다
 파랗다/퍼렁다 : 새파랗다/시퍼렁다
 하얗다/허엿다 : 새하얗다/시허엿다

와 같은 派生語들이 표제항으로 제시되곤 한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새-’와 ‘시-’ 두 接頭辭가 표제항으로 올려졌지만 李允宰 編의 「표준조선말사전」(1947)에서는 ‘새-’만이 올려지고 ‘시-’는 빠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文世榮 編의 「朝鮮語辭典」(1938)과 위의 李允宰 編의 사전에서는 ‘새-’

에 대한 정의에서 ① 새것 ② 형용사에 빛깔이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정도의 두 정의가 제시됨으로써 결국 多義語처럼 한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多義語와 同音異義語와의 구별은 사전편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으로 同音異義語들은 한 항목으로 묶어서는 안되며 分割排列(dégrouperment) 하여야 할 것이다. 派生語에 대하여 文世榮의 사전은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20)에서의 마찬가지로 派生形態素 특히 派生接頭辭를 표제항으로 올려 정의하면서 그에 의한 派生語들은 다시 묶어 한테 처리한 再排列(regroupement)의 방식을 따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의 경우에 同音異義語의 구별 없이 派生語들을 뒤섞어 배열하게 될 것이다. 文世榮의 사전에서 代表形으로 선정해서 정의를 내린 標題化된(lemmatisé) 항목들의 파생적인 표제항들만을 추려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속의 항목은 修正增補(1949)에 追補된 것임).

【새】(接頭) 「새것」 또는 「어떠한 형용사의 정도를 밝히는」 뜻을 표하는 말.

—까맣다	(—까매-지다)	—것
—노랗다	(—노래-지다)	—달
—덥	—뜻-하다	—로-이
—롭다	—문	—물-청어
—빨강다	(—빨개-지다)	—사람
—살	—살림	—색씨
—서방	(—수-나다)	—아가씨
(—애기)	—집	—파랑다
(—파래-지다)	—판	—혜

이들 派生語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하얗다’가 빠진 것도 문제이겠으나 그것보다도 위의 同音異義的 派生語들이 뒤섞인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² 이 ‘새-’와 짝이 되는 ‘시-’에 대해서 同音異義的 接頭形態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것’을 뜻하는 경우와 혼동되지는 않는다. ‘시-’에 의한 接頭派生語들을 같은 사전에서 그 대표형(lemma)만을 배열해 보면(괄호 속의 항목은 修正增補版에 追補된 것임),

【시】(接頭) 어떠한 형용사의 도수(度數)를 밝히는 데 쓰는 말.

² 여기서 同音異義的 派生語라고 한 것은 文世榮의 사전에 (接頭)로 묶어 제시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지 ‘새-것’과 ‘새-까맣다’가 모두 派生語임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 (--꺼매-지다) --꺼뎡다
- (--누래-지다) --누렁다
- (--빨개-지다) --빨짱다
- 서느렁다
- (--퍼래-지다) --퍼렁다
- 푸르딩딩-하다 --푸르죽죽-하다

와 같다. 역시 표제항으로 실린 ‘하얗다/허엿다’에 대한 接頭派生語 ‘새하얗다/시허엿다’는 표제항으로 올려 있지 않다. 文世榮의 사전이 보여주는 이상의 배열·정의·불균형 등은 거의 모두 朝鮮總督府 編의 「朝鮮語辭典」의 편찬방식을 그대로 따른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국어국문학회 편 의 「국어 새 사전」(1958)에서는 ‘새-까맣다, 새-노랗다, 새-빨갳다, 새-파랗다, 새-하얗다’라든가 ‘시-꺼뎡다, 시-누렁다, 시-빨짱다, 시-퍼렁다’ 등이 그 사전의 字母排列順序에 맞추어 표제항으로 올려져 있으면서도 ‘새-, 시-’의 두 接頭辭는 표제항으로 올리지 않은 반면에 ‘셋-, 잇-’은 그 派生語들과 함께 실려 있는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곧 形態素分析上의 不一致를 보여 준 非體系의인 편찬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形態素分析上으로 體系의이면서도 표제항 선정에 있어서는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도 흔히 눈에 띈다. 한 예를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전에는 ‘새-, 셋-, 시-, 잇-’의 네 接頭辭(‘머리’)가 모두 표제항으로 올려졌고 이들에 의한 派生形容詞들이 또한 올려졌는데, 그 올려진 표제항들을 추려보면,

- 새-까맣다 셋-까맣다 시-꺼뎡다 ×
- 새-노랗다 셋-노랗다 시-누렁다 잇-누렁다
- 새-빨갳다 셋-빨갳다 시-빨짱다 ×
- 새-파랗다 셋-파랗다 시-퍼렁다 ×
- 새-하얗다 셋-하얗다 시-허엿다 잇-허엿다

와 같아서 ‘잇-’에 의한 派生形容詞들에 있어서 균형을 잃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시-/잇-’의 음성실현이 ‘까맣다, 빨갳다, 파랗다’ 들 (좁혀 말해서 硬音·激音) 앞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에서라면 ‘셋-’에 의한 派生語들의 標題化에 있어서도 같은 처리를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셋-까맣다’는 음성적으로 가능해서 표제어로 올리고 ‘잇-꺼뎡다’는 음성적으로 불가능해서 표제어로 올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태도는 언어학적·사전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形容詞에 얽혀서 ‘빛깔의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接頭派生形態素들인 ‘새-, 셋-, 시-, 시트-’을 그 派生形容詞들과 함께 살펴서 국어사전에서의 標題化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標題化에 있어서의 불균형은 그 후의 많은 국어사전들에서 극복되었는바, 한 예로 이희승 편 의 「국어대사전」(수정 증보판 1986)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새-, 셋-, 시-, 시트-’ 네 개의 派生形態素가 모두 標題化되었고 그에 의한 派生語들도 확대되어 (새뽕양다/시뽕양다 등) 포제항으로 올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네 派生形態素들이 가지는 상관관계의 표시에 있어서는 아직도 체계적이지는 못하다. 이 사전의 <일러두기>의 ‘해석의 방식’에서 “어휘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풀이 끝에 동의어(同意語), 용례(用例), 변한말, 준말, 어감의 강약과 대조, 상대어, 참고어 등을 밝혔다”라고 하고서 사전에 사용된 ‘기호’ 속에

- * 참고되는 말 앞에
- △ 어감이 보통인 말 앞에
- ㄸ 어감이 센 말 앞에
- ㄷ 어감이 거센 말 앞에
- < 어감이 큰 말 앞에
- > 어감이 작은 말 앞에

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까맣다¹ [형] (음변) 아주 검다. 매우 검다. △까맣다. <꺼멩다.

꺼멩다 [형] (음변) 정도가 조금 지나치게 검다. ㄸ꺼멩다. >까맣다.

와 같이 기호들을 사용하였다. 현재 자료로 제시하곤 하는 네 派生形態素들 ‘새-, 셋-, 시-, 시트-’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관련지어 표시하고 있는가? 네 形態素를 포제항으로 삼은 경우에 定義는 생략하고서 그 상관관계만을 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새- ... <시- *셋-
- 셋- ... <시트- *새-
- 시- ... <새- *시트-
- 시트- ... <셋- *시-

즉 ‘새- <시-’와 ‘셋- <시트-’의 각각의 대립은 語感의 大小差를 나타내는 이른바 音聲象徵에 따른 것이다. 이는 ‘새-까맣다/시-꺼멩다’에서 ‘까맣다/꺼멩다’에 평형되어 결합되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그리고 *로 나타낸 관계

는 참고항목의 표시밖에 없으나 아마도 濃淡의 微細差에 관련되는 것인 듯하다. 그것은 派生語들에 대한 定義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만을 보이겠다.

- 새-까맣다 : 아주 짙게 까맣다.
- 셋-까맣다 : 더할 수 없이 새까맣다.

이상의 派生形態素들의 語感上的 意味差는 요약하면

	小	大
淡	새-	시-
濃	셋-	깃-

과 같이 「국어대사전」에서 이해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의미상으로 관련 있는’ (semantically related) 標題項들, 특히 派生語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처리되었을까? 네 接頭辭가 ‘까맣다/꺼멩다, 노랗다/누렇다, 빨갳다/뺨갳다, 파랗다/퍼렇다, 하얗다/허옇다’에 얹혀서 이루어지는 派生語들에 있어서 그 語感의 大小와 色感의 濃淡에 대한 표시가 체계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불균형을 보게 된다. 편의상 大小의 기호와 참고의 기호는 생략하고서 참고항목만을 接頭辭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앞의 것이 大小, 뒤의 것이 각각 濃淡임).

	까맣다/꺼멩다	노랗다/누렇다	빨갳다/뺨갳다	파랗다/퍼렇다	하얗다/허옇다
새	시 셋	시 셋	시 —	시 —	시 —
셋	깃 새	깃 —	깃 —	깃 —	깃 —
시	새 깃	새 깃	새 —	새 —	새 —
깃	셋 시	셋 시	셋 —	셋 —	셋 —

위의 요약된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色感의 濃淡을 나타내는 참고 항목이 빠져 있는 빈칸들이 있다. 派生語들이 체계적으로 標題化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의 표시에 있어서도 체계화된다면, 사전이용자들은 語彙能力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듯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接頭派生語들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 감감하다 감감하다 감감하다
- 검검하다 검검하다

사전에서 흔히 ‘보통말, 센말, 거센말’로 표현되는 平音 硬音 및 激音 사이

의 語感上的 대립은 ‘*검검하다’를 빈간으로 남기고 있으면서도 母音對立을 보이는 ‘감감하다’ (의미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1986)에서는 ‘감감하다, *검검하다’의 대립의 짝이 없는 ‘감감하다’에 대해서는 센말(ㄴ) 거센말(ㄴ)의 표시가 없으면서도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체계를 고려해서 센말과 거센말의 표시가 주어져 있다.

감감하다	
감꺄하다	ㄴ 감꺄하다
꺄꺄하다	ㄴ 꺄꺄하다
꺄꺄하다	ㄴ 꺄꺄하다
꺄꺄하다	ㄴ 꺄꺄하다

다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인 듯하다.

가꺄다	ㄴ 꺄꺄다	<거꺄다
거꺄다	ㄴ 꺄꺄다	>가꺄다
꺄꺄다	ㄴ 가꺄다	<꺄꺄다
꺄꺄다	ㄴ 거꺄다	>꺄꺄다

이들을 語基로 하여 파생된 경우에도 역시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새꺄꺄다	ㄴ 새꺄꺄다	<시꺄꺄다	*꺄꺄꺄다
꺄꺄꺄다	ㄴ 새꺄꺄다	<시꺄꺄다	_____
꺄꺄꺄다	_____	<꺄꺄꺄다	*꺄꺄꺄다
(꺄꺄꺄다)			
시꺄꺄다	ㄴ 시꺄꺄다	>꺄꺄꺄다	*꺄꺄꺄다
꺄꺄꺄다	ㄴ 시꺄꺄다	<꺄꺄꺄다	_____
꺄꺄꺄다	_____	>꺄꺄꺄다	*꺄꺄꺄다
(꺄꺄꺄다)			

의미상의 관계로 ‘새-꺄꺄다, 시-꺄꺄다’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이 標題項으로는 올려질 수는 없으며,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꺄꺄-꺄꺄꺄다, 꺄꺄-꺄꺄꺄다’가 누락되어 있어서, 결국 센말과 거센말의 표시에 있어서도 나머지의 派生語들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平音) 硬音 및 激音에 따라 센말과 거센말을 유기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派生語들이 派生形態素와 語基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표시된다면 아마도 보다 이상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서로 관련이 깊은 派生接辭와 그 派生語들을 예로 하여 巨視構造를 이루는 標題項들의 설정 문제와 微視構造 안에서의 각각의 상관관계의 표시 문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다시금 강조한다면,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派生語들을 체계적으로 標題化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接頭派生은 그리 생산적이지 못한데, 그 派生語들이 모두 標題化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接頭形態素에 일단 定義가 주어지면 그에 의한 派生語들의 定義도 [接頭形態素의 意味+語基의 意味]로 일관성있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原初的인 意味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로 定義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³

4. 接尾派生語들의 辭典的 處理

새로운 單語의 派生에 있어서 接頭派生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接尾派生은 그 生産性에 있어서나 意味·機能의 면에서나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어서 사전에서 接尾派生語들을 체계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처리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生産的인 接尾派生の 경우 規則性的한계가 흔히 문제가 되어 왔으며 또 意味·機能上的 模糊性이 자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派生語들의 分析限界라든가 그 標題化에 있어서의 選定限界도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다.

한글학회의 「큰사전」에서는 ‘접미-사’(接尾辭)란 표제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定義와 例示를 보이고 있다.

접미-사 (接尾辭) [이] 《어학》 어떠한 말의 끝에 붙어서 다시 한덩이의 낱말을 이루어 주는 말조각. “-님, -들, -질, -거리다, -답다” 따위 위에 든 예들이 우리말에 지극히 생산적인 것들임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의 일컬음 밑에 붙이어 높임을 나타내는 말”로 定義된 ‘-님’에 대해서는 아예 例示조차 없을 정도로 생산적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님’에 의한 派生語가 표제항으로 올려진 예는 그리 많은 편은 못된다.⁴ 표제항으로 실린 예들을 추려보면,

아버님 시아버님 할아버님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 아주버님
아주머님 아드님 따님 누님 아우님 도련님 서방님 선생님 손님

³ 예컨대, ‘짓-밟다’는 ‘짓(함부로, 마구)+밟다(물건 위에 발을 올려 놓고 서거나 누르다)’로부터 ‘마구 밟다’ 정도로 定義를 내릴 수 있으나 이러한 意味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意味로서의 ‘유린하다’가 다시 추가되어 多義語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⁴ 많은 사람들이 ‘-님’을 派生接尾辭로 다루고 있는데, 筆者의 中部方言에서는 이른바 ‘사이시’이 개재된 ‘아벗님, 어멋님, 하늬님, 아똥님, 아웃님, 부춧님……’과 같은 형식을 쓴다. 이런 경우에는 派生語들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천님 스님 원님 하느님

들인데, 이상하게도 ‘아우님’은 있으면서 ‘형님’은 없다. ‘선생’의 ‘높임말’인 ‘선생님’은 표제화되었으나 ‘공주님, 왕자님, 천주님, 사모님, 선배님, 부처님, 부모님, 형수님, …’은 표제화되지 않았다. 지극히 생산적인 派生語라고 했을 때에 標題化의 한계가 문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적어도 체계화되기를 우리는 여전히 바라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님/어머님,	할아버님/할머님
시아버님/시어머님,	아주버님/아주머님
아드님/따님,	도련님/서방님
누이/누님,	손님/천님

들과 같이 비록 의미상의 관계가 꼭 일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정한 관계로 짝지어 표제화했을 경우에는 ‘형/형님’과 같이 역시 짝지어 표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⁵ ‘선생/선생님’은 각각 표제화되면서 ‘형/형님’의 ‘형님’이 표제화되지 않은 것은 균형을 잃은 편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할아버님/할머님’은 표제화되었으면서도 ‘외할아버지/외할머니’에 대한 ‘높임말’이 표제화되지 않은 사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큰사전」 이후의 국어사전들에서 때로 ‘부처/부처님, 형/형님’과 같이 각각 표제화된 것은 체계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派生語들의 의미상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참고기호인 *을 붙여 항목을 제시했던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이 방법이 사전 전체에 쓰인다면 더욱 이상적일텐데, 위에 든 ‘높임말’에는 아무런 참고항이 주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큰사전」에

아우-님 [이] “아우”의 높임말.

로만 微視構造를 이루게 하였는데, 定義 다음에 ‘*아우’를 참고항으로 삽입했다면 ‘새까맣다’에 ‘*셋까맣다’ 같은 참고항을 삽입한 방식에 평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標題項이 겹쳐지는 경우에는 참고항을 생략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사전이용자들이 語彙能力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⁵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하느님’類와 ‘형님’類를 구분할 수도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表記・形態・意味上으로 보아 [하늘+님]과 같이 분석이 어려우므로 標題化시키되 後者の 경우에는 [형+님]과 같이 규칙적인 분석이 쉬우므로 ‘형’만을 標題化하고 필요하다면 ‘-님’과 같은 附隨項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든 接尾辭의 예 ‘-들’은 역시 「큰사전」에서 다음과 같은 定義와 用例를 가지고 있다.

-들 [발] 아무 말의 끝에나 붙어 “여럿입”을 또는 “여러 각자(各自)”의 뜻을 나타내는 말. [우리__은 몸이 튼튼하니 걸음을 빨리 걸어 보세. 우리는 몸__이 튼튼하니 걸음을 빨리 걸어 보세. 우리는 몸이 튼튼하니, 걸음을 빨리__ 걸어 보세. 우리는 몸이 튼튼하니, 빨리 걸어__ 보세. 우리는 몸이 튼튼__하니, 걸음을 빨리 걸어 보세__] (옛말: -들)

위에 주어진 用例는 ‘-들’로 하여금 “다시 한덩이의 낱말을 이루어 주는 말 조각”으로서의 接尾辭의 자격이 없게 하고 있다. 用例가 보여주듯이, 이렇게도 자유로이 쓰일 수 있는 接尾辭로서의 ‘-들’에 의한 派生語는 지극히 제한되어서 표제화되었다. ‘우리-들, 너희-들’ 두 예가 보일 뿐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표제화에 있어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우리/우리들 너희/너희들
저희/_____

‘우리/우리들’과 ‘너희/너희들’에서 볼 수 있는 意味差(cf. 任洪彬 1978)가 ‘저희/저희들’에도 적용된다면 역시 標題化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複數의 ‘-들’을 單語의 형성에 관여하는 接尾辭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특히 ‘튼튼__하다’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큰사전」은 물론 모든 사전에서 ‘튼튼하다’는 표제항으로 올리면서 ‘튼튼’은 표제항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이는 共時論的 分析으로 보아 제법 타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言衆의 인식 속에서는 ‘튼튼하다’에서 ‘튼튼’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바 아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과 같은 標語가 그 하나의 증거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가능성이 ‘튼튼들하다’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본다. ‘튼튼하-’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은 즉 化石化된 하나의 單語 또는 語彙素로만 보면, 이 경우에 ‘들’을 接尾辭로 보아야 하는 기이한 경우가 될 것이다. 표제항에 대한 문법적 정보, 定義, 그리고 用例에 있어서 서로 어긋남이 없이 微視構造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만일 ‘튼튼들하다’와 같은 경우의 ‘들’을 派生接尾辭로 보고서 ‘튼튼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들을 분석이 불가능한 하나의 單語로 보는 태도에서라면,

튼튼들하다 즐거워들한다
튼튼도하다 즐거워도한다

튼튼^을도 하다 즐거워^을도 한다
 튼튼만 하다면 즐거워^들을 한다
 튼튼^들만 하면 즐거워^들만 하지 마라

같은 경우의 [Adv.-하-]의 분리적 구성은 어찌 처리할 것인가.

위의 성격과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한 예의 하나가 「큰사전」에서 接尾辭의 또하나의 예로 든 ‘-거리다’이다. 이에 늘 관련항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대다’이기도 한데, 이들 ‘-거리다, -대다’에 대한 문법적 분류가 사전에 따라 일정치 않게 제시되어 왔다. 총독부의 「朝鮮語辭典」에는 活用語 (즉, 用言)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는 [自, 他] (즉, 動詞)로, 이운재의 「표준한글사전」에는 [끝] (즉, 語尾)으로, 국어국문학회의 「국어새사전」에는 ‘-거리다’ [어미] ‘-대다’ [접미]로 「큰사전」기타 대부분의 사전에는 接尾辭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거리다’와 ‘-대다’가 同義語로 처리되었는데, 다만 신기철·신용철의 사전들에서는 ‘-거리다’가 표준적인 것이고 ‘-대다’는 ‘틀린말’ 또는 ‘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예컨대 ‘거들먹대다’는 틀린말 또는 방언으로 그 표준어는 ‘거들먹거리다’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처리된 ‘-거리다/-대다’는 動詞와 派生接尾辭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들은 ‘튼튼하다’類의 形容詞들과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여 준다. 예컨대,

출랑거리다
 출랑(출랑)도 거린다/댄다(/한다)
 출랑(출랑)들 거리니?/대니?(/하니?)
 출랑(출랑)만 거려 봐라/대 봐라(/해 봐라)
 빌빌거리다
 빌빌도 거린다/댄다(/한다)
 빌빌들 거리니?/대니?(/하니?)
 빌빌만 거려 봐라/대 봐라(/해 봐라.)

와 같이 [副詞+動詞]의 구성에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성격이 결국 ‘거리다’의 品詞를 사전에 따라 달리 설정하게 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文世榮의 사전에서 ‘거리다’를 自動詞와 他動詞로 지시한 것은 예컨대

거드럭-거리다(自)제가 젼채하다. 꺼떡거리다. 흥청거리다.
 거들먹-거리다(他)언어행동을 차근차근히 하지 아니하다.

와 같은 경우를 고려한 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한다. 현재까지의 국어

형태론에서는 ‘-거리다/-대다’에 의한 派生語들이 自動詞와 他動詞로 기능하는 그 動機를 아직은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 있다.⁶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전편찬에서 ‘-거리다/-대다’類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위에 제시한 문법정보를 충분히 사전에 부여하려면 ‘거리다/대다’를 독립된 표제항으로 제시하고서 그것이 動詞로도 기능하고 또한 派生接尾辭로도 기능하는 정보를 例示와 함께 부여해야 할 것이다.

接尾辭의 예로 「큰사전」에서 든 ‘-답다’의 경우에도 위에 든 ‘거리다’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이 ‘-답다’를 接尾辭로 지시하면서 形容詞을 派生시키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총독부의 「朝鮮語辭典」과 文世榮의 사전에서는 각각 活用語와 形容詞로 분류하였다.

이미 金倉燮(198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답다’에는 形態·統辭論의 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사전에 흔히 標題項으로 등록되는

- i) 정다운 그 눈동자
- ii) 참다운 내 행복
- iii) 꽃다운 내 청춘

와 같은 경우의 ‘정답-, 참답-, 꽃답-’에서의 ‘-답-’이다. 즉 派生接尾辭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로서, ‘정, 참, 꽃’이 비록 名詞의 語基라도 위의 ‘정답-, 참답-, 꽃답-’ 앞에는 冠形語는 놓일 수가 없고 副詞語가 놓일 수 있다. 그러기에 이들 派生語들은 당연히 독립된 標題項으로 올려져야만 한다. 전통적인 사전편찬의 방식에 따르면 語源의 分析까지 흔히 피하기 때문에 ‘정-답다’ 방식과 같은 語根과 派生接尾辭를 분석하면서 이 새로운 派生語彙素 이외에 ‘정’과 ‘-답다’를 모두 標題項으로 올려야겠지만, 共時論的 構造分析에만 의존하여 사전을 편찬할 경우에는 새로운 뜻을 지니게 된 ‘정답다’의 한 語彙素를 標題項으로 올리고 다시 語源의(또는 形態史의) 情報를 주려면 微視構造 안에서 별도로 그 정보를 제시할 수도 있다. 아마도 원칙만은 일

⁶ ‘거들먹거리다’는 사전에 따라 自動詞와 他動詞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그만 거들먹거리라.’와 ‘어깨를 거들먹거리느 꼴이란.’과 같은 예문에서 보면 自動詞와 他動詞 모두 가능한 듯하다. 自動詞와 他動詞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문맥상에서 이해되는 中立動詞처럼 보이는데, 다만 ‘배가 흔들거린다/어깨를 흔들거린다.’ ‘배가 기우뚱거린다/몸을 기우뚱거린다’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리다/흔들다.’ ‘기울이다/기울다’에 평행되는 경우도 있다. 즉 能動과 被動이 ‘-거리다/-대다’ 앞에서는 中立化한 것이다. 形態史研究가 깊이있게 이루어진다면 좀더 분명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정해야만 사전이용자들이 체계적으로 語彙能力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답-’이 가지는 形態·統辭論的인 특성이 있다. 接尾辭 ‘-답다’에 의한 派生語의 예로서 대부분의 사전에서 들고 있는 ‘사내답다, 사람답다, 학자답다, 신사답다, 남자답다, 군인답다, 여자답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들 예는 전혀 標題化되지도 않았고 또 標題化된 體言(사내, 학자, 신사, …)의 부수항목으로도 제시되지도 않았다. 이들 예들은 앞에서 보인 ‘정답다’類와는 달리 單純語彙素로서의 體言의 경우와 같이 修飾語를 가질 수가 있다(cf. 金倉燮 1982).

- i) 한국의 사내답게
- ii) 서울 사는 사람답게
- iii) 훌륭한 학자답게
- iv) 영국의 신사답게
- v) 씩씩한 남자답게
- vi) 절도있는 군인답게
- vii) 살림하는 여자답게

이러한 形態·統辭論的인 성격으로부터 ‘-답-’이란 依存形態素를 단순한 派生接尾辭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시된다. 이에 대한 언어학적인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단 사전에는 ‘정답다’類와 구분해서 위의 形態·統辭論的인 성격이 일단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답-’을 接尾辭로 처리하여 標題項으로 올리고 그 예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의 성격에 알맞은 예를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예문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李熙昇 편의 「국어대사전」에서 ‘여자답다’와 ‘꽃다운 나이’의 두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식이었다.⁷ 예문까지 제시되었더라면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쉽사리 알 수 있듯이, ‘-답-’은 지극히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接尾辭임에 틀림없다. 屈折形態素들과는 달리 先行辭의 제약을 갖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接尾辭 자체의 표제항에 대한 기술에서 그러한 제약을 밝히고, 모든 ‘語基+接尾辭’의 구성을 標題項으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의 ‘-답-’에서 볼 수 있었던 形態·統辭論的인 성격과는 달라도 역시 순수하게 單語形成만의 문제가 아닌 形態·統辭論的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⁷ 위에서 든 ‘꽃답다’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cf. 金倉燮 1984). “그렇게도 꽃다운 靑春에 가다니!”와 “이른봄에 핀 꽃답다”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대부분의 ‘-답다’는 ‘-같다’정도로 대체되지만, ‘정답다, 참답다’의 ‘-답다’는 ‘-같다’로 대체될 수가 없다.

있다. 예컨대 派生副詞로 흔히 언급되어 온 ‘없이’ 등이 그것이다. 形態上으로는 분명히 派生副詞 [없]V+[이] Adv.Suf. 이지만, 다음과 같은 統辭上的 특징을 가지고 있다.

- i) 도와 준 사람 없이 혼자 일을 마쳤다.
- ii) 돈 한푼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다.
- iii) 설 틈도 전혀 없이 일을 시키다니!
- iv) 마실 물이 넉넉히 없이는 길을 떠날 수 없다.

즉 接辭 ‘-이’는 (([돈(이) 한 푼]+[없])+[이])이나 (([도와 준 사람(이)]+[없])+[이])에서처럼 先行文의 구성을 전제로 하여 쓰이고 있어서 단순한 單語派生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形態·統辭的인 정보 역시 사전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⁸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派生)接尾辭로 다룬 몇몇의 예를 통해서 사전편찬에서의 派生接尾辭와 派生語의 처리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생산적이지 못한 경우로 化石化된 派生語들은 모두 標題項으로 올리는 반면에 지극히 생산적이고도 규칙적인 경우에는 派生接尾辭와 語基들을 標題項으로 올리되, 다만 形態·統辭的 기능이 다양할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전들을 보면 대부분이 ‘-거리다/-대다’에 의한 派生語들은 標題項으로 아니면 해당되는 標題項의 附隨項으로라도 올리면서도 역시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답-’에 의한 派生語들은 몇몇 化石化된 예들만을 標題項으로 올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接頭派生語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편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接尾派生語들도 역시 체계적으로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語基와 (派生)接尾辭 사이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語基]+답다’에서는 어떤 만 形態素(예컨대, 特殊助詞 등)가 삽입될 수 없는 반면에 ‘[語基]+거리다/대다’에서는 ‘거드럭-(들(도)) 거리다/대다’의 경우와 같이 어떤 形態素가 삽입될 수 있다거나, ‘산들-거리다’에서 ‘산들’은 自立性이 없지만 ‘산들산들거리다’의 ‘산들산들’은 ‘~ 분다’와 같이 自立性이 강하다거나 하는 등등의 形態·統辭的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⁸ 흔히 派生副詞로 또 助詞로도 언급되는 ‘같이’도 形態·統辭的인 정보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i)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는 역시 성공했구나.
- ii) 너(와) 같이 게으른 녀석이 어디 있겠니?
- iii) 그(와) 같이 놀면서 어찌 먹고 살겠는가?
- iv) 비가 올 것 같이 하늘이 잔뜩 흐렸구나.

5. 辭典에서의 제로派生

동일한 형식의 語彙素나 形態素가 상이한 문법범주로 쓰이는 경우에 우리는 흔히 제로派生(zero derivation cf. 零變化)이라 부르고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는 名詞로 쓰이는 *waitress*가 만일

She's been *waitressing* at the Hilton for the past year.

에서처럼 動詞로 쓰이는 경우 名詞 *waitress*에 아무런 動詞派生接尾辭의 後接 없이 動詞化한 것이기에 제로派生の 한 예가 되는 셈이다(cf. Allan 1986: 217).

국어에서 제로派生을 기술할 때에 자주 名詞의 動詞化의 예로서 ‘신’(名詞)과 ‘신다’(動詞) 같은 짝을 드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로派生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音長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cf. 沈在箕 1982). 英語에서의 *conduct*(N)와 *conduct*(V)와의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제로派生이란 동일한 형식의 語彙素나 形態素가 意味上的 차이 없이 문법범주만을 달리하게 되는 形態·統辭論의 연결차로서의 개념이다. 만일 ‘가물(旱)’이란 名詞에서 ‘가물다’란 動詞로 제로派生하였다고 기술하려 한다면 그것은 形態史일 것이다. 辭典學의 면에서는 ‘가물’과 ‘가물다’는 意味上的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별도의 語彙素로 처리하며 ‘신’과 ‘신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본질적으로 依存形態素일 수밖에 없는 국어의 動詞는 自立形態素인 名詞와는 스스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語幹形態素의 동일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전에서 별도의 標題項으로 각각 자격을 갖는 것이다. 強勢만의 차이로 名詞와 動詞를 구별하는 英語와는 形態論的 構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국어의 경우에 形態上的 변화도 없고 意味上的 변화도 없이 문법범주만을 달리하는 제로派生(cf. 無接辭派生)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다.

- i) 나는 **오늘** 왔고, 철수는 **어제** 왔다.
- ii) 내가 온 것은 **오늘**이고, 철수가 온 것은 **어제**이다.

즉 ‘오늘’은 경우에 따라서 名詞로도 쓰일 수 있고 副詞로도 쓰일 수 있는데, ‘내일, 모래, 글피,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 등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매달, 매월, 매년, 매시, 매분’ 등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이들은 대체로 名詞로 처리되었는데, 다만 「큰사전」에서는 그 중에서 ‘오늘’만이 名詞와 副詞의 두 기능이 있음을 표시하였

다.⁹ ‘매일, 매달, 매월, 매년’ 등에 대해서는 이희승의 편저 「국어대사전」과 신기철·신용철의 「새우리말큰사전」에서 名詞와 副詞 두 가지로 표시하였다. 名詞와 副詞 두 범주로 쓰이는 예들로 ‘지금, 먼저, 나중, 처음’ 등도 있다. 사전에 따라서 또는 語彙에 따라서 그 문법범주를 달리 설정하여 왔지만, 이들은 共時論적으로 보면 名詞와 副詞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거의 모든 국어사전에서 ‘먼저’는 副詞로만 표시하였으나,

- i) 내가 먼저이고 네가 나중이다.
- ii) 내가 먼저 가고 너는 나중(에) 와라.

와 같이 副詞 이외에 名詞로도 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제로派生에 대한 문법범주의 표시가 엇갈리고는 있어도, 한 가지의 공통점은 두 가지 이상의 문법범주로 쓰이더라도 하나의 標題項 속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비교적 처리가 잘 되어온 제로派生の 예가 아마도 動詞와 形容詞로 쓰이는 ‘크다, 밝다, 있다’ 등일 것이다.

- 키가 크다./화초가 잘 크다.
- 색이 밝다./날이 환히 밝는다.
- 책이 있다./나는 집에 있다.

이들도 위의 체제에 따른다면 하나의 標題項 속에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¹⁰

국어사전들에서 여러 문법범주를 표시한 한 예로 ‘바로’를 볼 수 있다. 흔히 副詞 冠形詞 및 名詞로 쓰이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큰사전」에서는 助詞로서의 구실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 예문을 추려 보면

- i) 바로 말하여라.
- ii) 갔다가 바로 왔소.
- iii) 바로 백두산 밑에 사오.
- iv) 그 바로가 내 집 있는 곳이다.
- v) 저 산 꼭대기바로 쳐다보시오.

즉, (i)은 ‘바로고 곧게’에 해당되는 예문이고, (ii)는 ‘어김이나 지체 없이 곧’에 해당되는 예문이고, (iii)은 ‘어김 없는 곧 그’에 해당되는 예문이며,

⁹ 이희승 편저의 「국어대사전」에서는 ‘어제’에 대해서 名詞로 처리하면서 ‘부사적으로도 쓰임’이란 주의를 달고 「어제 보던 손님」이란 예를 덧붙이고 있다.

¹⁰ ‘크다, 있다’에 대한 反義的인 ‘작다, 없다’는 動詞化的 제로派生은 없다. 다만 ‘밝다’에 대해서만은 ‘어둡다(形)/(動)’가 가능하다(cf. 날이 밝는다/날이 어둡는다).

(iv)와 (v)는 ‘일정한 방향이나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란 定義에 해당되는 예문이되 각각 不完全名詞([절이])와 助詞([토])로 쓰인다는 것이다. 定義와 例文이 일러 주듯이 단순한 문법범주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i)과 (ii)로부터 同音異義의임을 알 수가 있다. 語源的으로는 同源의인 제로派生인지는 몰라도(cf. 바로~바르다), 현대 국어에서는 同音異義語로 보는 것이 옳다면, 이들을 標題化함에 있어서는 單一標題項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엄격하게 공시론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글씨를 바로 써라.”에서의 ‘바로’와 ‘바로 갔다와라.’에서의 ‘바로’를 제로派生으로 이루어진 語彙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전편찬에서는 ‘바로₁, 바로₂, ...’ 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分割排列해야 할 것이고, 名詞와 冠形詞 등으로 기능하는 경우만을 하나의 標題項 속에서 문법범주에 따라 구분해서 그에 해당하는 定義와 例文을 각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¹¹

요컨대 제로派生の 경우에 문법범주상의 차이가 문맥적으로 (또는 統辭의으로) 이해될 때에는 단일한 標題項으로 微視構造를 이루게 하되, 同形的이면서도 공시론적으로는 異義的인 경우에는 각각 單 語彙素로 보아 별개의 標題項으로 分割排列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국어사전에 標題項으로 올려지는 派生形態素와 그 派生語를 중심으로 標題化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사전편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派生語들의 체계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사전편찬에서는 單 語彙素들에 비해서 비교적 일관성있게 체계적인 편찬이 가능하다고 보고서 이를 검토한 것이었다. 편의상 接頭派生 接尾派生 및 제로派生の 순서로 검토하였는바, 標題項으로서의 설정 및 標題化(lemmatisation)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보았으며, 派生語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보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派生形態素들의 形態·統辭의인 정보를 제시함에는 더욱 미흡했었음을 보았다. 派生語들에 대한 공시론적·통시론적 분석과 形態·意味論的 이해가 막상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語彙能力的 체계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술이 요망되는 것이다.

¹¹ 홍제성(1986)에서는 自動詞/他動詞로 쓰이는 ‘움직이다’類의 動詞들은 多義語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cf. 차가 움직인다/철수가 차를 움직인다). “중이 올린다/철수가 중을 올린다”에서의 ‘올린다’도 문장구조에 따라 自動詞/他動詞로 쓰이는 데, 단일 意味上으로 보아 파리외邦宣敎會의 *Grammaire coréenne* (1981)에서처럼 使動과 被動의 차이로 보고서 ‘올리다’(使動)와 ‘올리이다’(被動)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多義語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서는 두 標題項으로 分割排列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完鎭 (1970) ‘文接續의 <와>와 句接續의 <와>,’ 語學研究 6-2.
- 金倉燮 (1984) ‘形容詞派生接尾辭들의 機能과 意味,’ 震檀學報 58.
- 宋喆儀 (1985) ‘派生語形成에 있어서 語基의 意味와 派生語의 意味,’ 震檀學報 60.
- 沈在箕 (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李秉根 (1982) ‘國語辭典史 片攷,’ 백영정명옥선생환갑기념논총.
- _____ (1985) ‘朝鮮總督府 編《朝鮮語辭典》의 編纂目的과 그 經緯,’ 震檀學報 59.
- _____ (1986) ‘國語辭典 編纂의 歷史,’ 국어생활 7.
- 任洪彬 (1978) ‘複數性과 複數化,’ 韓國學論叢(國民大) 1.
- 조제수 (1984) 국어사전편찬론, 과학사.
- 홍재성 (1986) ‘한국어사전편찬과 문법문제,’ 국어생활 7.
- Allan, K. (1986) *Linguistic Meaning* (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Corbin, D. (1983) ‘Le monde étrange des dictionnaires (4): la créativité lexicale, le lexicographe et le linguiste,’ *Lexique* 2.
- Cowie, A.P. (1983) ‘On Specifying Grammar,’ in R.R.K. Hartmann, ed., *Lexicography*.
- Dressler, W.U. (1985) ‘On the Predictiveness of Natural Morphology,’ *Journal of Linguistics* 21.
- Fabre, A. (1986) ‘Les adjectifs en—süröpta,’ *Cahiers d'études coréennes* 4, Collège de France.
- Gove, P.B. ed. (1967) *The Role of the Dictionary*, The Bobbs-Merrill Co., New York.
- Hartmann, R.R.K. ed. (1983)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Academic Press, London.
- Mel'čuk, I.A. (1982) ‘Lexical Functions in Lexicographic Description,’ *Proceedings of the Englis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erkeley, California.
- Mok, Q.I.M. (1983) ‘Dictionnaire et dérivation,’ *Lexique* 2.
- Zgusta, L. (1971) *Manual of Lexicography*, Mouton, The Hague.
- Zwanenburg, W. (1983) ‘《Dégroupement》 et 《regroupement》 dans le DFC et le Lexis,’ *Lexique* 2.

ABSTRACT**Korean Dictionaries and Derivatives**

Pyonggeun Lee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lexicographic descriptions of derivatives concentrating on some Korean dictionaries, and deal with the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dictionary-making.

The derivatives, i.e. the derived lexemes, are in general productive and regular in spite of morphosyntactic or morphosemantic constraints. In dictionary-making, the lemmatisation should be systematic in macrostructure, and the cross-references should be effective in microstructure. However, most Korean dictionaries do not have admirable qualifications for the systematic lemmatisation of derivatives and for their cross-references. In lexicographically dealing with the derived lexemes, the morphosyntactic information is not effectively specified, and their definitions are not parallel to the meanings of the derivational components.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접수: 1987. 2. 10)